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이뤄내자”

전북자치도-전주시, 국내 후보도시 선정 따라 도민 한마음대회 개최
김관영 도지사, 올림픽 유치 로드맵 발표... 본격적인 국제 경쟁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12일 도청 대강당에서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기원 도민 한마음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관련사진 16면>
이번 행사는 지난날 28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북 전주가 2036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전북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 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대회에는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남관우 전주시의장, 정강선 도체육회장, 서거석 도교육감 등 주요인사와 도민 및 체육인, 언론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해 하나 된 마음으로 올림픽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도민 한마음 대회는 전주시립예술단의 웅장한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올라 올림픽 홍보영상을 통해 전북이 꿈꾸는 미래 올림픽 비전을 공유하고 도지사, 전주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의 대회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2036 전주 올림픽 유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험한 본격적인 국제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신속한 전담조직 구성과 국내외 국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스포츠계를 비롯해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와도 폭넓게 접촉하며 세계를 향해 한창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도민과 함께 하는 ‘올림픽 유치 결의 퍼포먼스’였다. 참가자들은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이라는 전주 올림픽의 차별화된 가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계 도시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에는 도민들이 ‘손에 손 잡고’ 노래를 부르며 올림픽 유치 성공을 염원하는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다. 대한민국 후보지에 선정된 전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유치를 향한 도민의 뜨거운 열망을 재확인하고 전북만의 차별화된 올림픽 가치인 문화, 친환경, 지방도시 연대를 주무기로 세계 스포츠 역사에 획기적인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림픽은 국가 차원의 행사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36 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역사적 기회이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세계에 다시 증명하는 드라마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하나 된 전주·전주에서 세계 스포츠인의 함성이 막힘없는 만경강의 물줄기를 타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36 전주올림픽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는 일생일대의 빅이벤트”라고 강조하며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통합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전주 올림픽 유치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통·현대 문화예술 융합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전당과 통합 후 새출발
미션·비전 선포식 열고 창·등의 핵심 가치 설정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이사장 우범기 전주시장, 대표이사 최락기)은 12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 회 의장, 최락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재단 임직원,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재단 미션·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재)전주문화재단이 전통문화 계승과 현대 문화예술의 융합을 목표로 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통합을 마치고 힘찬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선포식은 △우범기 재단 이사장의 환영사 △남관우 전주시의장의 축사 △장기석 무형유산 판소리 명창과 김운덕 국악위원의 영상 축하 메시지 △기능통합 브리핑 △미션·비전 발표 및 선포식 △퍼포먼스 △전주시 홍보대사인 ‘이귀’의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주문화재단은 새로운 도약을 선언하며 ‘문화예술로 일상이 풍요로운 미래 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재단은 이날 선포식을 통해 창·등의 핵심 가치를 설정하고, △문화예술 가치 증진 및 확산 △전통과 현대가 공

존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산업화 △고객 중심 경영 실현을 핵심 경영 목표로 내세웠다.
재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지원 체계 고도화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등 12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전주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주문화재단은 전당과의 통합 및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지원부와 전통문화실, 문화예술실, 미래문화실, 한지진흥원의 1부 3실 1원, 총 15개 팀을 구성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앞서 시는 출연기관 혁신방안 및 실행과제를 거쳐 지난해 4월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고, 관광 사업 대폭 확대에 따른 관광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전통문화전당을 관광재단으로 전환하는 문화 분야 출연기관 조정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전주문화재단은 사전절차를 거친 후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조직개편과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등기 변경 등을 통해 통합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와 함께 관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전주관광재단’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한 ‘윤석열 파면 촉구 전북 총집결 당원결의대회’가 12일 오후 5시 도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정현을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기초단체장, 도의원, 시·군의회 의장단, 기초의원, 정무직 당직자, 당원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 “즉시항고기간 남아”

전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처장은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신빙, 불신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

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빙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

라 신빙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전 처장은 “재판부에서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개정·시행

새만금청, 건축허가·사용승인 전문성 제고 등 위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건축허가, 사용승인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건축기준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맞추어 새만금 사업지역 내 품격 높은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위원 자격을 건축분야에서 도시, 경관, 교통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심의위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증원했다.
아울러, 건축사가 대행하는 현장조사·감사 및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건축신고 대상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건축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향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권 4대 도시로
움비하는 7집 제

지표형산물
JIPYEONGSEON 7집 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NAVER

지평선물



김제시